

광주동·서부교육청, '초등학교 1~2학년 집중지원 프로그램'

기초학력 전담교사 방문 통해 문해력·수리력 집중지도 지원 초등 저학년 때부터 진단 통한 예방적 접근 강조 위해 마련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이 4~8월(여름방학 기간 포함) '2021 제1기 초등학교 1~2학년 집중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2021 제1기 초등학교 1~2학년 집중지원 프로그램'은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 올해 도입한 기초학력 전담교사제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정규교사를 전문 인력으로 배치해 담임교사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학습지원 대상학생의 지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초등 저학년 때부터 진단을 통한 예방적 접근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15교 초등학교(동부 6교, 서부 9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기초학력 전담교사는 학교로 직접 찾아가

담임교사의 지도 후에도 복합적인 요인으로 문해력·수리력에 어려움을 겪는 1~2학년 학생들을 지도하게 된다.

정규교사인 기초학력 전담교사는 학교에 상주(월·수·금 오전이나 오후 또는 화·목 오전)하며 학습지원 대상학생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주 2~3회 1대1 맞춤형 개별 지도를 실시한다.

또 학생의 학습상황을 이력 관리해 담임교사와 긴밀히 소통·협력하고, 학생의 지도 결과를 학부모와 수시로 상담해 가정과의 연계학습도 강화할 예정이다.

수업은 담임교사 및 학부모와 협의해 학생의 학습 실태에 맞춰 '기초학력 전담교사-담임교사 협력수업'·'방과 후 수업'·'수업시간' 중 일부 시간에 별도 공간에서 이뤄지는 개별화

수업 등을 활용에 진행된다. 학생들이 보통 수준의 문해력·수리력 역량을 갖춰 교실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지도를 종료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 학기 동안 운영되는 만큼 학생의 한글 해독, 유창성 등 읽기·쓰기 능력과 수 감각·연산 등 수리력 향상에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초등 저학년 때부터 학습 결손과 공부 상처를 최소화하고 초기 개입을 통한 적극적인 기초학력 예방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초등학교 1~2학년 집중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담임교사는 "기초학력 전담교사제가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및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담교사제 확대,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마련으로 단위학교의 기초학력 책임지도에 있어 든든한 지원군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3월 15~26일 한글 해독을 어려워 하는 초등학교 3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문해력 집중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최윤희기자

고흥군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생활지원 나서

찾아가는 밥 드림(Dream)꾸러미 전달 등 4개 프로그램 추진



고흥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꿈드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등록된 관내 학교 밖 청소년 5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밥 드림(Dream)꾸러미'를 지원한다. 고흥=김택영기자

이번 급식지원 사업은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에게만 지원되었던 급식을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지원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결식을 예방한다는 것.

따라서 규칙적인 식습관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추진된 사업이다.

본 사업은 다양한 식사 대체용품으로 구성되어 매주 1회 방문 전달서비스 및 상담활동과 병행하는 등 일상생활의 어려움 및 건강상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검정고시 및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재와 온라인 강의, 전화상담 등 학습지원과 청소년들의 개인적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직업체험 및 취미지원을 통해 학교밖청소년이 꿈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장흥교육지원청, 마을학교 '놀이' 통한 교육으로 즐겁게 소통하다

마을교사 대상 '놀이문화지도사' 과정 연수 개설



장흥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호)은 마을학교를 운영하는 마을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마을학교의 지속성과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여겨 마을교사의 역량을 키우는 과정으로 '놀이문화지도사' 2급 연수 과정을 개설하였다. 이 과정은 5일부터 시작하여 30시간 운영되며, 과정을 모두 이수하면 자격증이 부여된다.

첫 번째 시간에는 마을교육공동체와 놀이, 아동의 발달과 심리, 놀이의 가치와 중요성, 안전과 주의점 등에 대한 강의와 간단하게 맨손으로 하는 다양한 놀이 활동을 직접 몸으로 익

히면서 배웠다. 단순한 놀이였지만 놀이를 하며 즐거워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니 잠시나마 동심으로 돌아간 듯했다.

놀이 활동 강사 박미선 선생님은 놀이를 통해 아이들은 경쟁적 태도를 버리고 협력하는 것을 배우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놀이문화를 전파하는데 힘을 쓰고 있다고 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전래 놀이, 빗줄·공깃돌 등 도구를 활용한 놀이, 몸놀이, 공동체놀이 등 구체적인 놀이 활동 지도방법과 지도 자세, 수업 계획안 짜고 시연하는 활동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직장 생활을 하는 마을교사가 많아 일과를 마친 저녁 시간에 이루어지는 연수와 피곤한 텐데도 모두들 다음시간이 기대된다며 웃음꽃을 피웠다.

김성호 교육장은 "마을학교를 통해 공동체 정신을 실현하는 마을교사와 마을 활동가들이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무안교육지원청, 유·초 협력 통한 교육과정 내실화 힘써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란)은 6일 단설 유치원과 작은학교 원장, 교(원)감 선생님들이 모여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 2020년 12월에 첫발을 댄 유·초 연계 협력적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활동 내용

등을 공유하고 2021년에도 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방법 등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사업은 소규모 초등학교의 체육관 및 운동장, 텃밭 등을 단설유치원과 함께 공동 활용하여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운영하

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날은 텃밭 가꾸기, 맨발 걷기, 신체활동 등으로 시설 공유 활용성을 높이는 교육과정 내실화 방안 및 작은학교에 대한 학부모 홍보 개선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무안=이기성기자

